‘인권·평화’ 전남대, 5·18 민주화운동 세계화 이끈다

미국 UT 오스틴 학생들과 교류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 소개
5·18기록관·전일빌딩 등 방문

전남대는 지난 23일 학내 문화공간인 스토리움에서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대표단과 학생들을 초청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대 제공

전남대학교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세계 민주주의 교육 자산으로 확장해가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전남대에 따르면 최근 학내 문화공간인 스토리움에서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이하 UT 오스틴) 대표단과 학생들을 초청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교류 행사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국제협력과 주관으로 진행됐다. 정치학과 국제안보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지닌 UT 오스틴 소속 클레멘트 국가안보센터의 폴 에드거 부소장(미 육군 중령 출신)과 앰버 하워드 프로그램 매니저를 비롯해 국제관계·생화학·정치학·시민리더십 등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20명이 함께 방한했다.

행사는 전남대 5·18연구소 김형주 교수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됐다.

‘5·18 민주화운동의 맥락, 전개, 그리고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미친 역사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정치적 폭력의 윤리-국가 폭력과 시민 저항’을 주제로 전남대 재학생들과 UT 오스틴 학생들이 함께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전남대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세계적 투쟁’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과 함께 국가 폭력의 정당성, 계엄군의 책임, 시민의 무장 저항에 대한 윤리적 평가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UT 오스틴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시민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5·18에 대한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사 후 방문단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과 전일빌딩 245, 국립5·18민주묘지를 차례로 방문해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요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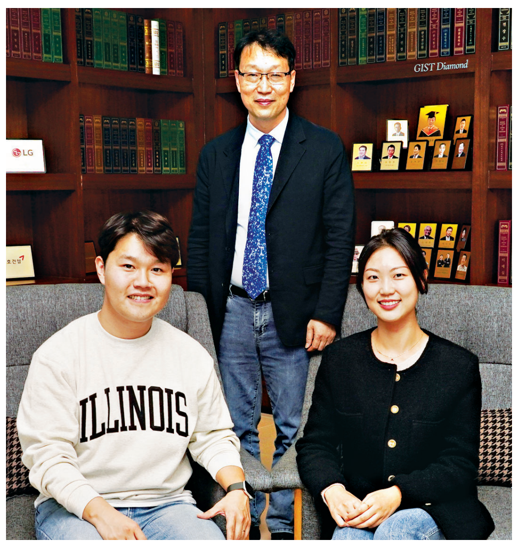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가 담긴 공간을 체험하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한층 깊이 있게 다졌다.

강의혁 전남대 국제협력부처장은 “이번 교류는 세계 청년들과 5·18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신을 나누고, 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전남대는 다양한 국가와의 학술·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GIST, 이산화탄소 ‘알릴 알코올’ 전환기술 개발

이재영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팀



GIST 최민준(왼쪽부터) 박사, 이재영 교수, 배수안 박사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이재영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알릴 알코올’을 세계 최고 수준 ‘부분 고전류밀도’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화학 전환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알릴 알코올은 이중 결합을 가진 알릴기와 수산기를 함께 포함한 구조로 플라스틱, 접착제, 살균제, 향료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고분자 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료로 사용되며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기술은 66.9%의 패러데이 효율을 달성했으며, 이는 기존 최고 기술보다 효율이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높은 효율은 불필요한 부산물 생성은 최소화하고, 원하는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촉매의 탁월한 선택성을 입증한다.

또한 기존에 널리 알려진 ‘일산화탄소를 거치는 반응 경로’가 아닌 포르메이트(HCOOad)라는 중간물질이 포름알데히드(HCOa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탄소-탄소(C-C) 결합이 형성되는 새로운 반응 경로를 밝혀냈다.

이재영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석유화학 산업과 제철 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조선대, 대흥사서 외국인 유학생 제다체험

조선대학교는 최근 차의 성지로 불리는 대흥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흥사 제다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흥사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차문화를 몸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생들은 대흥사 녹차밭에서 찻잎을 따고, 이를 덖어 차를 만드는 전통 제다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직접 손으로 차를 만들며 한국 차문화의 섬세함과 정성이 담긴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최환준 기자

국공립대 총장협 “지역균형발전 캠퍼스 혁신도시 조성을”

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최근 ‘국가중심국공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을 열고 새 정부에 건의할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목포대 제공

전국 19개 국공립대로 구성된 국가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이하 국중협)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캠퍼스 혁신도시 2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했다.

27일 국립목포대에 따르면 국중협은 지난 21~22일 이틀 간 한국대학신문과 공동으로 ‘국가중심국공립대학 프레지던트 서밋’을 열어 새 정부에 건의할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참석한 15개 국가중심대학 총장단은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중심 국공립대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총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민주당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서울대(연구중심대학) 10개 만들기’는 국가의 초격차기술 확보와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소도시에 입지한 국가중심대학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에 청년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을 보다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이 입지한 중소도시 대학들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에 특화연구소를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의 전문인력양성, 산학공동연구, 청년들의 문화복지 정주여건을 만드는 ‘지역균형발전 캠퍼스 혁신도시 20개 만들기’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중협은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 국회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조선이공대, 고교생 대상 진로 프로그램 운영

조선이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교생 대상 실무 중심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조선이공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7명을 대상으로 현직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무 체험 프로그램 ‘실무 Talk! Talk!’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식물과학과, 식품과학과, 애완동물과, 조리과학과 등 4개 학과 분야의 현직 전문가가 참여해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직업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로컬 창업의 가능성과 아이템 발굴 사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조선이공대는 앞서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잡케어(JOB CARE)’ 플랫폼을 활용한 자기탐색, 결과 해석,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등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조선이공대는 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 선정돼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통합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